

<글말교실 소감문>

글말교실의 코칭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배운 소중한 깨우침과 긍정적으로 느낀 점을 적어보았다. 배워가는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지다고 느낀 점은 글의 빈약한 논리 구조를 파악하여 생각지도 못한 곳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당연하다고 넘어간 부분에 어떤 논리가 생략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신다. 이는 락 음악의 질은 남성성의 원인에 대한 글을 쓰면서 특히 실감한 점이기도 하다. 이 글은 내가 특히 관심있어 했던 분야인 락 음악에 대한 글이었기에 자신있게 썼다. 하지만 너무 좋아한 것이 탈이었을까, 글을 처음 읽는 독자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나에게만 평범한 지식이 독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생소한 지식이 될 수 있던 것이다. 나에게 당연한 논리가 누군가에게는 좀 더 세부적인 증명 과정과 설명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글은 논리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소중한 코칭이었다.

이렇듯 글말교실에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지식은 학생들에게 크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토론 교육을 잘 받은 것이 아니다. 유교문화권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글쓰고 말하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디어의 범람하는 정보들을 비판없이 수용하는 태도도 문제가 된다. 학생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사고하는 방법은 많은 학생들에게 부족하리라 생각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글말교실의 코칭이다. 이 프로그램이 당사자의 논리 능력을 한번에 증폭시켜준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다만 글말교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게 있어 글말교실은 나의 한계, 내가 가진 논리의 심각성 등을 깨닫고 앞으로 고쳐나가게 할 수 있는 트리거 혹은 동기부여로 작동했다. 글을 쓸 일은 많지만 정작 글쓰기에 관련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더구나 일대일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찾기 힘들다. 글말교실은 나의 글쓰기 능력에 적색 신호를 찾아 알리는 의사이다. 코칭을 듣고 나아지려고 스스로 노력할지 말지는 본인에게 달린 일이겠지만 내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배워가는 점이 많다. 누군가에게 평가받음으로써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내가 준비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 무엇을 골라서 구체화할지가 고민이라면 교수님이 날카롭게 콕 집어내어 생각을 정리해주신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 감이 잡힌다. 비록 한번의 코칭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사람마다 코칭으로 배워가는 지식을 다르겠지만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하는지 배우리란 점은 확신한다.

결과적으로 내 글쓰기 능력은 글말교실의 코칭을 듣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듣고 나니 과거에 썼던 보고서, 과제물 등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써야한다는 가르침이 가장 소중한 지식인 것 같다. 앞으로도 글을 쓸 때 이 조언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